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 고찰

박 신 미 · 이 재 정*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적 여성패션의 전환점인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추출하는데 있다. 제시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했고, 연구결과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은 네 가지로 추출되었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몸의 자유와 관련된 '실루엣의 극단적 변화'이다. 여성패션이 'S'에서 'T'로 실루엣의 극단적 변화를 이룬 1900년대는 인공적 지지물에 의해 구속 받았던 몸의 주도권이 여성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초기에는 장식성이 강한 'S-레터(letter)'실루엣이 유행하나, 중기에 들어서는 여성의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살린 'S-커브(curve)'실루엣과 장식적 요소가 배제되어 단순미가 돋보이는 '깁슨 걸(Gibson girl)'실루엣이 유행했고, 이후 티 가운(tea-gown)의 실외착용, 오리엔탈의 수용, 대안적 패션(alternative fashion)의 보편화라는 복합적 사회변화가 만들어낸 직선적 실루엣인 'T-실루엣'이 출현하며 1900년대 여성패션은 실루엣의 극단적 단순화를 이루어 냈다.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의 공조로 인한 '대안적 패션의 보편화'이다. 1904년 영국과 프랑스의 '양국협약(Entente Cordial)'에 의한 문호개방은 영국 남성복의 프랑스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유럽과 미국의 여성복 시장을 주도했던 프랑스 패션에 실용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주며, 19세기 중반부터 스포츠웨어로 착용되었던 대안적 패션인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를 보편화시키며 여성패션 현대화에 기여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트렌드 확산의 교두보로서 백화점과 패션잡지의 역할이다. 비록 쿠튀르들의 모조품을 중류계층에 판매했으나 백화점은 패션잡지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통로였다. 백화점이 고객확보를 위해 제작한 우편주문도록 역시 스타일 확산의 중요한 도구였다. 마지막은 제1세대 프랑스 쿠튀르들의 활약이다. 여성패션 현대화는 상류계층의 패션을 장악한 쿠튀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찰스 프레데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 자크 두세(Jacque Doucet)는 현대적인 패션시스템을 정착시켰고, 폴 푸아레(Paul Poiret)는 쇼 윈도우(show window)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잔느 파퀸(Jeanne Paquin)은 '하이 웨이스트드(high-waisted)' 실루엣을 일상복으로 장려해 1907년 폴 푸아레의 '디렉투아 스타일(Directoire style)' 출현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주제어: 여성패션, 현대화 양상, 1900년대

I. 서론

16세기 르네상스 이후부터 20세기 이전까지 나폴레옹집권기인 19세기 초를 제외하고 여성패션은 인위적인 구조물인 코르셋(corset), 크리놀린(crinoline), 버슬(bustle) 등에 의존했고, 이 구조물에 구속된 몸은 여성의 행동을 제약했다. 신시아 러셋(Cynthia E. Russet)(1989)에 따르면, 19세기는 “남성은 창조하지만 여성은 모방한다”는 관념이 사회 전반의 압도적 호응을 얻으며, 남성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남성에게 다시 종속시키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히 구분했다¹⁾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들의 관념과는 다르게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변화는 고정된 의식을 서서히 무너트리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종속되었던 상류사회의 여성패션역시 개방적 사고를 받아들인 중류이하계층 여성들의 생활패턴변화를 지켜보며 20세기에 접어들어 현대화된 패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른다. 19세기중반이후 상류층과 중류층의 일부 의상에서 볼 수 있듯 계급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기 시작했고²⁾ 비록 파리 쿠티르의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1881년 이성주의 복식학회(The Rational Dress Society)에서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제한한 코르셋이 없는 ‘이성주의 복식(Rational Dress)’³⁾이 외면당했지만, 이 시기 현대적 패션의 의미는 실용성과 여성의 건강에 관한 문제였다. ‘건강이 보장되며 도움이 없이 입을 수 있는 독립적인 옷’, 이것이 현대적 패션의 척도였다. 이미 중류계층의 여성들이 이 실용적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상류계층에서 하류계층으로 유행스타일이 전파되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볼 때 중류이하계층의 여인들은 여전히 상류층 여성의 의복을 동경했고, 패션을 주도한 상류층 여성들의 스타일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이 단순화 현상은 패션의 현대화로 규정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여성패션의 현대화 기점은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스포츠웨어로 착용되었던 여성용 테일러드 수트와 블루머(bloomer)를 비롯하여 1900년대 폴 푸아레(Paul Poiret)의 ‘디렉투아 스타일(Directoire style)’의 발표,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복식규제의 완화, 1920년대 ‘가르손느(la garçonne) 룩’의 형식을 완성한 샤넬의 니트 카디건이 언급되며 현대패션사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안적 패션의 보편화와 코르셋의 해방이 완벽히 이루어진 20년대 여성패션의 단순화정립을 위해서는 이전시대 이미 이루어 놓은 사회·문화적 변화가 기저에 놓여 있었다. 이 중 20세기의 문을 연 1900년대는 전쟁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총체적으로 의복규제가 완화된 1910년대에 비해 여성패션의 현대화를 위한 양상들이 스타일, 아이템, 패션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된다. 1900년대는 프랑스를 기준으로 ‘벨 에포크(La Bell Époque, 1870-1914)’ 혹은 영국을 기준으로 ‘에드워드안 기(the Edwardian era, 1901-10)’로 분류되며 복식학자들에 의해 현대화의 시작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프랑수아 보도(François Baudot)(1999)⁴⁾와 헤리엇 위슬리(Harriet Woesley)(2000)⁵⁾는 ‘벨 에포크(La Bell Époque)’로, 엘리자베스 유잉(Elizabeth Ewing)(2001)⁶⁾은 ‘에드워드안(Edwardian)’기로, 문화의 트렌드를 척도로 벨러리 멘데스(Valerie Mendes)와 에이미 드라 헤이(Amy de la Haye)(1999)⁷⁾는 ‘이국적 취향(Undulations and Exotica, 1900-1913)기’로 이 시기를 명명하고 있다. 시점을 규정하는 기준은 다르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오리엔탈리즘을 수용하여 직선적 실루엣을 선보인 파리 쿠티르 폴 푸아레의 ‘디렉투아 스타일’이 코르셋에서 해방된 현대화된 여성패션 시작임을 알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1900년대 여성패션에 관한 논제로 폴 푸아레의 작품을 분석하거나,⁸⁾ 이 시대 유행한 디자인 사조인 아르누보와 현대패션

의 관계를 고찰⁹⁾하고 있다. 1900년대는 여성패션의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이러한 양상들은 여성 패션단순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20세기 이후 역동적으로 변화한 여성패션스타일의 축을 마련한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 고찰은 실루엣 형성을 위한 구조물에서 여성의 몸을 해방시켜 스타일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실루엣과 사회의 변화를 통해 등장한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적 여성패션의 전환점인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추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1900년대 주류를 이룬 디자인 양식과 패션양식의 흐름을 살펴본 후, 1900년대 여성복식의 현대화 양상과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시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했고, 연구범위는 1900년에서 1909년으로 국한하며,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논의함으로 남성패션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논제인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 고찰에서 ‘현대화’의 의미는 ‘실루엣 형성을 위해 사용된 구조물에서 해방된 여성패션’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1900년대 사회 환경과 디자인 양식의 흐름

18세기 중엽 시작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과 그에 따른 기술진보는 1900년대에 이르러 진가를 발휘하며 사회 환경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미 개발된 내연 기관, 전화 통신, 전기 모터 등

은 수공예 기술에 의존하지 않은 싸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했고, 라디오, 통신, 텔레비전이 개발됨에 따라 가정생활의 혁명이 일어났다. 1903년에는 라이트 형제가 수세기 동안의 오랜 꿈인 가솔린 엔진 비행을 실현했고, 같은 해 최초의 무성영화인 『더 그레이트 트레인 라버리(The Great Train Robbery)』가 상영되면서 영상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이 서거하자 전반적 디자인 양식은 권위적 조형성이 퇴색되고 보다 유연한 경향을 띠게 되었으며,¹⁰⁾ 이 시기 초 의상 역시 산업디자인 양식에 순응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여성적 성향이 가미된 부드럽고 완만한 실루엣을 선호했다.¹¹⁾

1900년대 산업디자인을 주도한 양식은 이전시기 최고의 전성기를 맞으며 그 명맥을 이어온 ‘아트 앤 크래프트(Art & Craft, 1850-1900)’와 ‘아르누보(Art Nouveau)’이었다. 절충의 시기인 19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의 장을 연 1900년대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정신을 이어가며 많은 양식들의 장점을 취합한 복합적 디자인 양식인 아르누보가 패권을 쥐고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산물이지만 20세기 디자인 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트 앤 크래프트(Art & Craft)’운동은 창조와 생산과정에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예술 민주화를 주창한 존 러스킨(John Ruskin)이 그 사상적 배경을 마련했고, 그가 표방한 과거 회귀적 고딕 정신과 사회주의 이념을 예술품의 디자인과 생산을 통한 이상적 사회개혁을 실천적 노동 스타일로 전개시킨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 주도되었다.¹²⁾ 가구, 벽지, 직물, 스테인드글라스, 도자기 등을 두루 다룬 아트 앤 크래프트의 정신적 모델은 중세 장인 길드(guild)였다. “예술 행위 자체가 사회 속의 도덕을 위한 긍정적인 힘을 고취시켜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¹³⁾는 모리스의 신념은 1920년대의 모더니스트에 영향을 주어 현대 디자인운동 철학의 근간을

마련했다. 이들은 고딕 교회의 엄숙함, 중세의 농가에서 느껴지는 소박함과 현실 도피적 분위기, 자연주의 취향 등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었으며, 따라서 중세주의, 고딕 등 엄숙, 장대함과 중세의 소박한 농가에서 느껴지는 순수성과 정직성, 그리고 자연 취향이라는 다소 대조적인 성향이 엄격한 장인 정신의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룬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했다.¹⁴⁾ <그림 1>에서 보듯 1909년 미국 『Vogue』지의 표지는 디자인, 패션, 문화전반에 퍼져있던 아트 앤 크래프트를 감각적으로 재현하여 당시 유행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아트 앤 크래프트 운동이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각국은 유리, 금속, 준보석 등 새로운 재료를 다루면서 보다 유연하고 여성적인 접근 방식에 심취하고 있었다. ‘아르누보(Art Nouveau)’라는 이름은 유럽 각국의 디자이너 공예가들을 초빙 전시한 아트 딜러 사무엘 빙(Samuel Bing)의 상점 명에서 기인했으며, 이 전시회에는 벨기에 가구 디자이너 반 데 벨테(Henry van de Velde), 미국의 유리 디자이너인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Louis Comfort Tiffany), 프랑스의 에밀 갈레(Emile Galle)와 르네 라리크(Rene Lalique) 등이 초대되었다.¹⁵⁾ 아르누보의 전성기를 논의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1890년에서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기인 1914년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⁶⁾ 아르누보는 각 나라별로 차별화되어 발전하지만¹⁷⁾ 흐르는 듯한 유기적 형태는 공통적 스타일이었다. 이 양식은 역사주의의 반복이나 모방을 거부하고 대칭에 의한 균형보다는 비대칭의 균형을 추구하며 유기적 생명체 속에 있는 근원적 모티브를 이용하여¹⁸⁾ 장식적 곡선미를 표현했다. <그림 2>는 헥터 귀마르(Hector Guimard)가 디자인한 캐비닛으로 추상적인 이미지와 비대칭적인 선의 조화가 유연한 곡선으로 마무리되어 아르누보 양식의 대표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아르누보는 늘어진 듯한 유기적 선

의 흐름은 식물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 외에도 과거적 요소, 곧 켈트 미술과 로코코의 영향 그리고 당시 서구에 전래된 일본 우키요에(Ukiyo-e, 浮世繪)판화의 영향을 받았다. 자연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양면성을 지닌 아르누보의 원리는 이 시기 초 패션을 비롯하여 주얼리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2. 1900년대 패션 양식과 흐름

르네상스 이래로 서구의 여성패션은 인위적 형태를 추구한 결과 코르셋과 같은 기능성 속옷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인체의 자연미보다는 억압을 통한 인공미를 이상화했다. 따라서 빅토리아 여왕 사후 아르누보적 성향이 가미된 에드워드안 기(the Edwardian era, 1901-10)에 해당하는 1900년대까지도 코르셋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하여 위로 추켜올린 듯한 S-실루엣이 기조를 이루었다. 인위적으로 인체의 곡선을 형상화한 S-커브 실루엣 뿐만 아니라 패션에서의 아트 앤 크래프트와 아르누보적 성향은 점차 시폰과 레이스를 주로 사용하는 등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장식성을 더욱 강조했고 이후 완만한 엠파이어 스타일의 유행으로 이어졌다.¹⁹⁾ 1900년대는 우아한 곡선미의 시대였다. 벨 에포크와 에드워드안기는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사치스럽고 비실용적이며 지나치게 여성스러운 의상들을 패션 트렌드로 허용했고, 이 시기 초 의상들은 19세기말의 스타일을 추종하며, 여성스러운, 화려함, 자연미, 우아함을 내재한 성숙한 여인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상류층여인들은 여전히 오전, 이른 오후, 티타임, 저녁, 취침으로 나누어 하루에 적어도 5번 이상 옷을 갈아입었고, 신발 역시 의복에 맞추어 갈아 신었다. 아르누보의 영향을 받은 의상은 선, 색채, 재질면에서 특징을 보였는데 선은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선으로 물결치듯 구불거리면서 길게 이어지는 곡선이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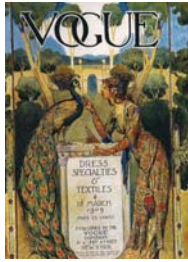
호되었다. 색채는 인상주의의 영향으로 밝고 부드러우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파스텔 색조가 유행했다. 이 시기를 대표컬러는 핑크, 오렌지, 퍼플, 옐로, 그린, 스카이 블루였고, 이중 색의 효과를 얻기 위해 패션리더들은 비치는 옷감을 겹쳐 입었다. 재질은 얇고 부드러운 질감의 직물이 사용되고 동·식물에서 유래한 유기적 모티프가 많이 이용되었다. 주름 잡힌 실크 시폰, 실크 오간디, 실크 조켓, 실크 크레이프, 실크 알파카 등의 다양한 종류의 실크제품이 유행한 가운데, 얇은 린넨, 레이스, 브로케이드, 벨벳 그리고 여우털이 그 뒤를 이었다.

사교모임을 위한 오전시간에는 활동성을 고려하여 재킷, 스커트 그리고 코트로 구성된 테일러드 슈트가 기본 착장으로 선호되었다. 또한, 코르셋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허용되었던 티(tea) 가운은²⁰ 여성의 우아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매혹적 아이템으로 인식되었고, 이 편안한 스타일은 이후, 코르셋 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코디네이션 되었으며, 외출 시 망토를 걸쳐 스타일을 완성시켰다. 코르셋에서 벗어나 초기부터 직선적 실루엣을 유지해온 티가운은 1900년대 중반이후 이브닝 드레스 스타일의 트렌드를 주도하며 실내복에서 실외복으로 그 입지를 넓혀 나갔다. 드레스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구두는 실내용 슈즈(indoor shoe)와 실외용 부츠(outdoor boots)로 그 형식이 구분되었다. 실내용 슈즈는 오전용 부두아 슬리퍼(boudoir slippers), 오후용 여밈이 있는 낮은 구두(low shoes with fastening), 저녁용으로 무두질한 새끼염소가죽 슬리퍼(kid slippers) 혹은 로제트(rosettes)와 나무 힐로 장식된 사틴 슬리퍼(satin slippers)로 나누어졌다.²¹ 실외용 부츠 역시 세분화되었는데, 워킹 슈즈 혹은 나무힐로 만들어진 방문용 구두와 케리지 구두(carriage shoe)가 그것이다.²² 이외에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승마 부츠, 테니스 구두 그리

고 오버 슈즈들이 추가되었다.²³

액세서리 전반에 모피 트리밍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차양이 있는 큰 모자, 차양이 없는 토크, 양산, 파라솔, 장갑, 중간 굽 높이구두의 펌프스가 유행했다. 후기에는 아몬드 토(toe) 모양의 신발과 손잡이가 긴 핸드백이 유행한다. 이 시기 특이한 점은 드레스의 스타일은 이전과 같이 프랑스가 주도한 반면, 구두산업은 구두전용 재봉틀(sole-sewing machine)이 개발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다. 1860년 고든 맥케이(Gordon McKay)의 구두전용 재봉틀의 개발은 미국을 구두 산업의 본고장으로 만들었다. 이후, 20세기 초 여성용 구두는 시즌별로 스타일을 제안하는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 1861년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처음 설립된 미국 최초의 백화점 워너메이커스(Wanamaker's)는 1901년 필라델피아와 뉴욕매장을 위한 카탈로그에서 루이스(Louise XIV), 오페라(Opera), 밀리터리(military), 하프 밀리터리(half military), 커먼 센스(common sense)의 5가지 힐(heel) 스타일과 오페라(Opera), 런던(London), 브로드웨이(Broadway), 커먼 센스(common sense)의 4가지 토(toe) 스타일을 제안했다.²⁴ 전통적 스타일(formality)에서 드레시 블랙 펌프(dressy black pump), 스포티 텐 브로그드 워킹 슈(sporty tan brogued working shoe)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힐과 토를 제안한 레드 크로스 슈즈는 언제나 리본으로 발등이 장식되었다.²⁵ 1908년 레드 크로스 슈즈(red cross shoes)는 히트 아이템이 되었다<그림 3>.

1900년 개최된 파리 박람회에서 시퀸으로 다양한 장식이 패치워크 된 스타킹이 선보였으며, 이 시기 후반, 스커트 폭이 좁아지면서 스타킹은 최고의 유행 아이템이 되었다. 당시 스타킹의 모티브들 중 특히 화려한 뱀 모티브가 인기를 끌었다.²⁶ 향수는 모스 로즈(moss rose), 라벤더(lavender), 메이 블러섬(may blossom) 그리고 뉴 모운 헤이(new mown hay)등 시골정원의 향이 나는 은은한 것들



<그림 1> 『Vogue』 New York 표지, 1909
<출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2004, p.55>



<그림 2> 헤क्टर 귀마르가 디자인한 캐비닛, 1900년대
<출처: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2004, p.78>



<그림 3> 레드 크로스 슈즈, 1908
<출처: 『Shoes: A history from Sandals to Sneakers』, 2006, p.115>



<그림 4> 최초로 '캐주얼'의 개념 적용된 스포츠코트, 1909
<출처: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2001, p.77>

이 유행했다.²⁷⁾

헤어 스타일은 뒷머리를 들어 올려 빗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앞으로 기울여 모자를 쓰는 것이 유행했다. 낮은 모자에 깃털 장식을 하거나 스톨을 쓰는 것이 이 시기 초 유행했고, 후기에는 거대한 모자가 유행을 주도하며 스타일의 패턴을 전환시켰다.

당시의 패션은 산업혁명으로 부를 축적한 신중부르주아 계급을 위한 사치품이었으며 물건(Morgon), 콘수엘로 밴더빌트(Consuelo Vanderbilt), 카네기(Carnegie)와 같은 미국의 신중 재벌 가문의 여인들은 19세기말 탄생한 파리의 찰스 프레데릭 워스(Charles Frederic Worth) 메종을 방문하여 의상을 주문하곤 했다.²⁸⁾ 워스는 최초로 디자이너 이름을 패션 브랜드로 사용한 오트 쿠튀르의 창시자였으며, 워스 하우스에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얻은 자크 두세(Jaqueo Doucet), 폴 푸아레는 1900년대 파리 패션의 중심에 서 있었다. 자연미를 중시한 잔느 파퀸(Jeanne Paquin) 역시 이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했다.

1900년대는 19세기말에 등장한 자전거의 영향으로 스포츠웨어에 바지착용이 허용되었고,²⁹⁾ 여성복에 사이클링복과 수영복을 비롯한 스포츠웨어 및 스웨터가 캐주얼 의상이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영국의 디자이너들은 고급 테일러링 기술을 이용하여 스포츠웨어를 생산했고, 크리드(Creed), 레드웬

(Redfem) 그리고 버버리(Burberry)가 이 영역의 최신 유행을 주도했다<그림 4>.³⁰⁾

이 시기 패션리더로는 '깁슨 걸(Gibson girl) 스타일'로 주목 받은 여배우 카밀 앙투아네트 클리퍼드(Camille Antoinette Clifford)와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Anna Pavlova),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이 있다.

III.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

1. 실루엣의 극단적 변화

실루엣의 극단적 변화는 1900년대를 여성패션의 해방기로 규정하는 가장 표면적 이유이다. 1900년대 초기는 아트 앤 크래프트의 전통을 계승하며 "꽃으로서의 여성(woman as a flower)",³¹⁾ 곧 장식성이 강한 S-실루엣이 유행하나, 중기에 들어서는 장식적 요소가 배제되고 여성의 곡선미를 극대화한 단순한 S-실루엣, 후기에는 티 가운의 실외착용과 오리엔탈의 수용, 이국세계의 동경, 대안적 패션의 보편화라는 복합적인 사회변화가 만들어진 직선적 실루엣인 T-스타일이 단순한 세련미를 필두로 아르누보의 감성을 표현해냈다.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여성의 몸을 구속시켰던 복식은 19세기

초 나폴레옹집권시기에 일시적으로 앵파이어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몸의 자유를 허용하였으나, 곧 다시 구속했다. 여성패션이 ‘S’에서 ‘T’로 실루엣의 극단적 변화를 보인 1900년대는 르네상스 이후 지켜오던 몸의 구속을 풀어버린 혁명의 시기였다. 이것은 인공적 지지물에 의해 구속받았던 몸의 주도권이 여성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표 1>.

1) 초기 스타일: 꽃으로서의 여성

19세기말 코르셋과 버슬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S-실루엣은 아트 앤 크라프트와 아르누보의 영향으로 장식성을 유지한 채 보다 더 부드러운 라인을 표현했다. 코르셋은 여전히 S-라인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으나, 버슬은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중시하는 아르누보의 감성을 존중하며 서서히 사라져갔다.

1900년대 S-밴드(bend) 스타일로 통칭되었던 이 S-실루엣들은 몸통부터 hips까지 내려온 코르셋으로 허리를 강조하고 가슴을 극대화시켜³²⁾ 스타일을 완성했으며, 1900년대 중반까지 유행을 주도했다. 이 시기 S-실루엣은 ‘S-레터’, ‘S-커브’, ‘깁슨 걸’ 실루엣으로 다양한 여성의 감성을 표현하며 발전되어나갔다. 가슴은 더욱 크고 장식적으로, 허리는 코르셋으로 가늘게, hips는 버슬스타일로 크게, 종모양의 스커트 길이는 바닥에 끌리도록, 이것이 S-실루엣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었다. 자수, 아플리케, 레이스 수, 유리구슬, 시퀸, 프릴, 플리츠 등의 장식기법이 이 아름다운 여성의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5>는 1901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1900년대 초 S-레터 실루엣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림 6>는 마샬 앤 스넬그로브(Marshall & Snelgrove)의 1906년 제품으로 S-커브 실루엣을 테일러드 수트에 적용시켰다. <그림 7>은 깁슨 걸 실루엣으로 S-커브보다 디테일과 트리밍은 제한되고 실루엣의 외곽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S-실루엣을 완성하기 위해 어깨부터 엉덩이 길이까지 내려오는 속옷인 먼 슈미스(chemis)와 반바지 형의 여유분이 많은 속옷인 디워스(deawers)위에 착용된 또 다른 속옷인 코르셋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³³⁾ 어린 소녀부터 노인까지 모든 여성들은 코르셋을 착용했고, S-실루엣의 아름다운 곡선미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가는 허리를 점점 더 가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어졌다. 배는 딱딱한 바스크(busk)로 평평하게 압박되어 납작해지고, 가슴은 코르셋의 상단에서 떠받쳐지는 과장된 실루엣을 만들며 S-레터 실루엣의 발전된 형태인 S-커브 실루엣이 완성된다. 이전 시대보다 길이가 길어진 이 시기 코르셋은 코튼이나 세틴지에 삼각형 천이나 밴드를 붙여 형태를 만들었고, 앞판은 스틸로 제작된 평평한 뼈대로, 뒤는 끈으로 마무리되었다. 의복의 스타일이 변함에 따라 이전보다 코르셋의 길이는 길어졌다. S-커브 실루엣은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특히 유행했다.³⁴⁾

S-레터 실루엣과 S-커브 실루엣에 이어 깁슨 걸 실루엣이 1900년대 중반 새로운 S-실루엣으로 주목받는다. 벨기에 출신 여배우 카밀 앙투아네뜨 클리퍼드(Camille Antoinette Clifford)는 1900년대 초 유명한 미국의 그래픽 아티스트인 찰스 대나 깁슨(Charles Dana Gibson)의 스폰서로 『US \$2000』 매거진이 개최한 깁슨의 드로잉을 토대로 한 가상 여인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며 스타덤에 오른다.³⁵⁾ 클리퍼드는 1902년 미국에서 그리고 1904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된 퍼포먼스에서 깁슨 걸의 역할을 맡아 장식이 배제되고 더 심플해진 새로운 S-실루엣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종모양의 스커트가 hips 아래 전체를 휘감는 ‘깁슨 걸’ 스타일은 모래시계형 실루엣에 커다란 깃털모자와 타조부채로 완성되었다. 극도의 장식성을 미의 척도로 여겼던 여성패션에서 1902년 출현당시 다소 파격적으로 여겨졌던 이 실루엣은 S-커브 실루엣의 명맥을 이어 1900년대 중·후반의 유행을 주도함과 동시에 거

대한 헤어 장식을 선보임으로서 이 시기 후기 유행할 거대한 모자패션의 전성을 예견했다. 1900년대 초기 스타일은 전통적인 양식을 수용하며 프랑스를 중심으로 장식적인 S-실루엣이 여성패션의 전반을 주도했으나, 단순미를 추구하는 미국적 스타일인 깃스걸 스타일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실루엣은 남기고 장식적 요소를 배제시키며 여성패션은 아트 앤 크래프트의 특성에서 벗어나 역사주의적 반복을 거부하면서 율동적 섬세함과 유기적인 실루엣을 표현한 아르누보의 형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2) 후기 스타일: 아르누보를 담은 1900년대 식 단순화

1900년대 후반 유행한 T-실루엣의 시작은 19세기 말 실내용 의상으로 입혀졌던 티 가운(tea gown)인 ‘엠페이어(empire)’, ‘마담 레카미에(Madame Récamier)’³⁶⁾와 같은 하이 웨이스트 실루엣에서 기인한다. 19세기 말, 이성주의 복식의 산물로 이미 코르셋에서 해방된 티 가운 스타일은 1900년대 말 몸의 자유를 예견했다. 1900년 이후 8년 동안 데이웨어와 이브닝웨어의 스타일을 S-실루엣이 주도했으나, 19세기말부터 시작된 대안적 패션인 테일러드 수트의 발전, 1905년 잔느 파퓌의 낮과 밤에 모두 착용

할 수 있는 코르셋이 없는 하이 웨이스트 데이웨어(day wear)의 제안, 1908년 폴 푸아레의 ‘디렉투아(Directoire)라인’의 유행으로³⁷⁾인해 몸의 구속을 파괴한 직선적 실루엣은 1900년대 말 대표적 스타일로 급부상한다. <그림 8>은 폴 푸아레가 1908년 제안한 직선라인 데이 드레스로 S-실루엣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5>, <그림 6>, <그림 7>과 비교해 볼 때 실루엣의 외곡이 없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볼 수 있다.

아르누보의 감성을 받아들여 하이 웨이스트 실루엣으로부터 발전된 T-실루엣은 디렉투아 라인의 보편화로 보다 더 직선적이고 단순화된 형태가 된다. 평면적 실루엣에 구속력이 없는 이성주의 복식 혹은 직선적 실루엣의 테일러드 재킷, 블라우스, 무릎 밑에서 극도로 좁아져 걸음걸이를 구속한 1910년의 호블 스커트(hobble skirt) 그리고 거대하고 장식적인 모자는 T-실루엣을 구성하는 기본 착장이었다. 폰피두르흐 헤어스타일(Pompadour hair style)에 작거나 중간크기의 모자로 완성되었던 1900년대 초 S-실루엣과 비교해볼 때, T-실루엣으로 변화하면서 모자의 크기가 거대해졌다. S-실루엣이 인체 곡선의 자연미를 극대화해 여성의 몸 자체를 아름다움의 척도로 삼았다면, T-실루엣은 직선적 실루엣으로 해방된 여성의 몸의 자유를 보



<그림 5> 『Dressed for the country』, 1901
<출처: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2001, p.5>



<그림 6> 마샤 앤 스텔그로브, 『Spring Fashion, for walking』, 1906
<출처: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2001, p.10>



<그림 7> 『Gibson Girl Style』, 1904
<출처: 『Decades of Fashion』, 2000, p.22>



<그림 8> 폴 푸아레, 『Day dress, the new straight line』, 1908
<출처: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2001, p.62>

<표 1> 1900년대 여성패션 실루엣 단순화 과정



1900년대 초·중반: S-실루엣 → 1900년대 후반: T-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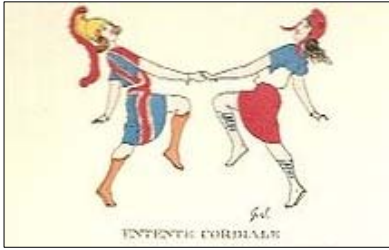
장하며 헤어장식을 극대화해 새로운 패턴의 미적 척도를 만들어냈다. 1900년대 후반 의복의 실루엣이 단순해지자 여성들은 더욱더 거대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며 완벽한 T-실루엣을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 영국과 프랑스의 공조: 대안적 패션의 보편화

대안적 패션은 이미 19세기말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남성적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여성을 위한 완전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며 외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갈망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표면화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³⁸⁾ 19세기 말 영국에서 여성을 위한 스포츠웨어로 디자인된 대안적 패션³⁹⁾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에드워드안 레이디(Edwardian lady)’라는 신여성(new woman)의 표상을 제시하며 영국을 중심으로 세련된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었고,⁴⁰⁾ 이것은 패션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해주며 새로운 여성복 스타일의 정착을 알렸다.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혀진 이 수트는 경제적 여유로움 속에 대중을 위한 스포츠웨어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개발된다. 재킷, 블라우스, 스커

트가 기본 착장인 테일러드 수트는 초기에 남성복의 형식을 받아들여 딱딱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여성스러움을 반영한 곡선적 디자인으로 발전해 나갔다. 또한, 테일러드 재킷의 유행은 재킷 속에 받쳐 입는 ‘에드워드안 블라우스(Edwardian blouse)’를 대중화시키며, 블라우스를 독립적 패션 아이템으로 올려놓았다.

1900년대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욕구에 눈을 떴고, 여성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여성용 테일러드 재킷(tailored jacket)이 신 여성들 사이에 착용된다. 또한, 영국 테일러드 수트의 파리 상류층 남성복식의 여성착용을 허용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여성 패션의 현대화에 기여했다. 1900년대 영국 양복업자들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누렸고 이미 상류층 여성들을 포함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당시 런던은 파리의 유일한 경쟁자였다. 여성복이 파리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면 남성복인 테일러링 기술은 영국을 중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는데, 1904년 영국과 프랑스의 ‘양국 협약(Entente Cordial)’⁴¹⁾은 파리의 유명 패션 하우스들이 런던에 문호를 개방하는 실질적 계기를 만들과 동시에 런던의 테일러들의 파리 진출을 허용했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 프랑스는 영국을 상징하는 브리타니아



<그림 9> 양국협약을 축하하는 프랑스 엽서, 1904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Entente_cordiale>



<그림 10> 알렉산드라 공주와 레드펀의 수트
<출처: 'A Century of Fashion', 1999, p.31>

(Britannia)와 프랑스를 상징하는 마리안느(Marianne)가 춤추고 있는 기념엽서를 만들어 양국협약을 공조를 축하했다. 레드펀(Redfern), 루실(Lucile), 크리드(Creed), 몰리노(Molyneux)는 파리로, 반면 파갱, 푸아레는 런던으로 진출했다. 이들 중 파리지엔느의 세련미에 영국적 테일러 링을 훌륭하게 재현한 영국 출신 찰스 포인터 레드펀(Charles Poynter Redfern)을 주목해야 한다. 레드펀은 공식 모임에 입을 보다 단순한 옷차림을 찾고 있던 알렉산드라 공주(Princess Alexandra)에게 1880년 테일러드 수트를 제안하여 최초로 여성에게 스포츠웨어가 아닌 남성복을 모태로 한 비즈니스 수트를 입혔다 <그림 10>.⁴²⁾ 알렉산드라가 입을 이 획기적 실용의상은 순식간에 유행을 선도하는 여성들이 스포츠웨어가 아닌 데이웨어로 수트를 착용하도록 독

려했으며, 이러한 영국의 트렌드는 양국협약에 의해 파리로 전파되어 이 스타일을 전 세계로 파급시켰다.

활동성이 필요로 했던 스포츠웨어역시 테일러드 수트의 유행에 힘을 더했다. 테일러드 수트가 스포츠웨어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용도에 맞게 다양화된 길이의 재킷들이 디자인되었고, 이것은 일상복으로서의 대안적 패션의 디자인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짧은 재킷의 스타일은 타이트했고, 긴 재킷의 스타일은 여유로웠다. 하체의 움직임 폭이 큰 테니스를 위한 테일러드 재킷은 그 길이가 짧고 폭이 넓은 스커트와 착장되었고, 이에 비해 움직임 폭이 다소 적은 골프를 위한 재킷은 길이가 길고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스커트와 착장되며, 기능에 맞는 스타일들이 출현했다



<그림 11> 데번엄 앤드 프리버디사의 기성복으로 제작된 실크골프코트, 1905 <출처: '20th Century Fashion', 1999, p.30>



<그림 12> 다양한 스타일의 에드워드인 블라우스, 1904 <출처: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2001, p.21>



<그림 13> 헤릿즈 백화점 전경, 런던, 1909 <출처: '20th Century Fashion', 1999, p.20>

<표 2> 1910년 이전 설립된 백화점과 패션잡지 목록

백화점	패션잡지
1778 Flint & Clark(Clark & Debenham), London	
1790 Dickins & Smith(Dickins & Jones), London	
1796 John Watts(Kendall Milne), Menchester	1798 『The Leady's Monthly Museum』
1808 Hanningtons, Brighton	1806 『La Belle Assemble』
1812 Swan & Edgar, London	
1813 Benjamin Harvey(Harvey Nichols), London	
1833 Peter Robinson, London	1830 『Godey's Lady's Book』, USA
1838 Bainbridge, Newcastle	
1849 Henry Harrods, London	
1852 Le Bon Marché, Paris	1852 『The Englishwoman's Domestic Magazine』
1856 Lewis's, Liverpool	
1860 Jessop & Son, Nottingham	1861 『The Queen』
1861 Wanamaker's, Philadelphia	1867 『Harper's Bazaar』, USA
1863 William Whiteley, London	1873 『The Delineator』, USA
1864 John Lewis, London	1875 『Myra's Journal of Dress and Fashion』
1871 Peter Jones, London	1876 『McCall's』, USA
1875 Liberty, London	1886 『Woman's World』
1879 D. H. Evans, London	1890 『Woman』
1882 Fenwicks, Newcastle	1892 『Vogue』, USA
1909 Selfridges, London	1894 『Woman's Own』

<그림 11>. 또한, 테일러드 수트의 확산은 수트 안에 받쳐 입는 블라우스 디자인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하이넥과 긴소매의 형태가 기본형인 이 블라우스는 정교한 플리즈 턱이 소매와 칼라에 반복적으로 트리밍 되어 재킷과 같은 실루엣으로 디자인 되었고, 아르누보적 감성을 표현한 높은 네크라인은 고래 뼈나 셀룰로이드 혹은 철사로 지탱되었다.⁴³⁾ 화려한 이 블라우스는 ‘에드워드안 블라우스’로 명명되며, 볼레로와 함께 혹은 재킷을 제외하고 독립적 스포츠웨어 혹은 데이 웨어 아이템이 되었다. 블라우스는 스커트 속으로 집어넣어 착용 되었고, 독립적 패션아이템이 되면서 드레스의 동체보다 더 큰 볼륨감을 지니게 되었다<그림 12>.

영국 남성복의 프랑스 진출은 유럽과 미국의 여성복 시장을 주도했던 프랑스 패션에 실용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며 손쉽게 수용되었고,

이는 현대패션의 단순화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3. 새로운 트렌드 확산의 교두보: 백화점과 패션잡지

1900년대 패션 시스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백화점과 패션잡지를 통한 기성복⁴⁴⁾의 보편화를 들 수 있다. 귀족층 고객을 담당하던 쿠튀르와 달리 백화점은 중산층 계층의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지속적으로 쿠튀르들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제품을 팔거나 혹은 자신들의 맞춤제작실에서 이들의 의상을 제작했다.⁴⁵⁾ 비록 쿠튀르의 드레스가 아닌 모방품을 판매했으나, 백화점은 대중들이 새로운 스타일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창구였으며, 쿠튀르의 인기와 함께 유행아이템을 전 세계

로 확산시키는 통로이기도 했다. 또한, 백화점은 이후 약화되는 귀족의 경제력과 떠오르는 신흥부호들과 중산층의 경제력을 인정한 제1세대 프랑스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시장 공약에도 기여한다. 백화점의 발달은 당시 우편주문판매로 인한 패션잡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앨리스 맥크렐(Alice Mackrell)(2005)은 20세기 초 인쇄기술의 발전은 이 전스타일의 개인적 경험과 더불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위력을 과시하며 패션의 위치를 재정립했다고 설명한다.⁴⁶⁾ 주문 전단지와 함께 유행 스타일을 소개할 잡지는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1878년과 1889년에 이어 1900년 세계 박람회(World Fairs in Paris)가 파리에서 다시 개최되자 많은 외국 자본이 보다 넓은 세계 진출을 위해 유입되었고, 19세기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생겨난 백화점들은 20세기에 접어들어 소비패턴의 변화를 주도했다. 18세기 처음 생겨난 백화점은 1900년 전 이미 19개 이상의 브랜드가 설립되어 있었고⁴⁷⁾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표 2>. 프랑스에서 르 봉 마르쉬(Le Bon Marché), 르 프렝탕(Le Printemps), 오투르 본어 데 담(Autre Bonheur des Dames)같은 백화점에서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하는 신 소비계층이 생겨났으며, 백화점은 이들에게 상류층이 애호하는 사치품을 모방한 모조 상품들을 구입하도록 권유하며 소비심리를 자극했다.⁴⁸⁾ 영국에서는 해럴즈(Harrods), 스완 앤 에드거(Swan & Edgar), 데번엄 앤드 프리바디(Debenham & Freebody) 그리고 미국자본으로 세워진 셀프리저스(Selfridges)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미국에는 벌그도프 굿맨(Bergdorf Goodman), 헨리 벤틀(Henri Bendel) 그리고 니먼 마커스(Neiman Marcus)가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했다.⁴⁹⁾ 미국 최초의 백화점 워너메이커스 역시 이 대열의 중심에서 있었다. 스트리트 패션의 선구자로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의상들이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성의 눈에 들게 되면서 의상의 스타일이 단순화되었다.⁵⁰⁾ <그림 13>은 1909년 런던의 헤릿즈 백화점의 전경으로 당시 유행했던 직선적인 T-실루엣의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볼 수 있다.

『보그(Vogue)』, 『라 모드(La Mode)』와 『레이디스 리얼티(Ladies Realim)』와 같은 패션잡지와 엽서, 담배카드 그리고 백화점 우편주문 카탈로그는 이 시기 패션 스타일을 홍보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잡지들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언제나 일러스트를 기사와 함께 실었다. 당시 대중들은 잡지나 엽서에는 귀부인의 초상이, 남성을 위한 담배카드에는 여배우나 무희들의 스타일이 실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다.⁵¹⁾ 백화점들은 자신들만의 우편 카탈로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타일들을 제안했고, 이를 제품 판매와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백화점과 패션잡지는 새로운 스타일을 전파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 패션의 현대화에 일조했다.

4. 제1세대 프랑스 쿠튀르의 활약: 현대적 패션시스템의 정착과 오리엔탈의 영향

프랑스 역사상 가장 번창했던 시기 벨 에포크(1870-1914)는 파리지엔느들에게 모든 종류의 화려함을 허용했다. 풍요로움과 국제적 명성이 있는 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호화 사치 산업의 중심지였고, 이 시기 다른 응용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패션 역시 자율적 세계가 존재하는 파리의 전유물이었다. 특히 이 시기 중 1900년대는 현대적 패션시스템이 정착되고,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와 같은 순수 예술가들이 오리엔탈에 심취하여 작품 활동을 전개했으며, 제1세대 쿠튀르들 역시 예술의 중심에 놓인 오리엔탈리즘에 수용하여 작품에 새로운 감성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이상적인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 이전시대 구조물에 얽매어 있던 여성의 몸에 자유를 부여했다. 1900년대 후기에 나타난 의복의 직선적 실루엣은 티가운 실루엣 드레스의 실외 착용과 더불어 동양적 감성이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승화된 결과이다. 19세기 말 업홀스터리 스타일(upholstery style, style tapissier)⁵²⁾의 본거지 위스 하우스(House of Worth)와 유연한 곡선미로 명성을 이어간 자크 두세는 현대적 패션시스템을 정착시켰고, 구축과 자유사이의 접점을 찾으며 단순화된 벨 에포크시대의 감

성을 표현한 잔느 파캥 그리고 오리엔탈을 가장 적극적으로 패션에 반영시키며 직선적 실루엣에 심취한 폴 푸아레는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며 여성패션 현대화에 기여했다.

19세기말 현대적 패션시스템의 기초는 영국출신 프랑스 디자이너 찰스 프레데릭 위스(1825-1895)에 의해 이미 정립되었다. 고객들을 위해 최초로 모델을 기용하여 모델에게 옷을 입혀 판매하는 시스템을 완성시킨 위스는 계절별 컬렉션(S/S, F/W collection)을 선보이며 현대패션시스템을 구축한다.⁵³⁾ 1895년 위스 사후 아들 개스통 위스(Gaston

<표 3>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 및 특성

현대화 양상	특성
실루엣의 극단적 변화: 'S'에서 'T'실루엣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스타일: 꽃으로서의 여성을 표현한 S-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아트 앤 크래프트의 장식성을 재현한 S-레터. - 초·중기: 유기적인 형태미를 살린 아르누보의 영향으로 여성의 인체 곡선을 살린 S-커브. - 중기: 디테일과 트리밍을 배제하고 극도로 외곡 된 곡선미를 표현한 '깊은 갈' 스타일. ⇒ S-실루엣 역시 초기 장식성 중심에서 형태중심으로 스타일이 변함. • 후기 스타일: 아르누보를 담은 1900년대식 단순화, T-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티 가운 스타일의 실외복 디자인으로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된 '엘파이어 스타일', '디렉투아 라인'과 거대한 모자와 조화가 돋보이는 직선라인의 T-실루엣. ⇒ 여성의 몸이 인위적 구조물로부터 해방됨.
영국과 프랑스의 공조: 대안적 패션의 보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4년 영국과 프랑스의 양국협약으로 인한 문호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테일러드들의 파리진출로 인한 대안적 패션의 보편화. - 테일러드 슈트가 스포츠웨어가 아닌 일상복으로 받아들여짐. - 테일러드 슈트의 부산물인 에드워드안 블라우스의 독립적 착용. ⇒ 영국의 기술과 프랑스의 시장성이 만나 대안적 패션이 보편화됨.
새로운 트렌드 확산의 교두보: 백화점과 패션잡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과 패션잡지를 통한 유행 트렌드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류층의 유행을 주도한 쿠티르의 신상품이 기성복으로 모방되면서 유행 스타일이 빠르게 전파됨. - 인쇄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패션 잡지와 우편주문판매 전단지의 새로운 트렌드 제안이 보편화 됨. ⇒ 백화점과 잡지의 역할로 상류에서 중·하류계층으로 코르셋에서 해방된 직선적 실루엣의 의상이 전파됨.
제1세대 프랑스 쿠티르의 활약: 현대적 패션시스템의 정착과 오리엔탈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패션현대화를 위한 쿠티르들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스 하우스, 개스통 위스와 장 필립 위스: 주제가 있는 전지로 현대적 수주 시스템 정착. - 자크 두세: 배우 기용을 통한 현대적 의상 홍보시스템 도입. - 잔느 파캥: 낮부터 밤까지 착용 가능하고, 최소한의 보정용 속옷만을 사용하는 '하이 웨이스트드' 실루엣의 개발로 푸아레 디자인 혁명의 발판을 마련해줌. - 폴 푸아레: 1905년 기모노 코트, 1906년 코르셋에서 해방된 최초 여성복식인 '로라 몬테'를 탄생시킴. 이후 1907년 '디렉투아 스타일'을 완성하여 여성패션의 스타일을 전환시킴. 쇼윈도우 디스플레이를 고안하고, 패션쇼와 퍼레이드 영상을 제작해 브랜드 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함. ⇒ 쿠티르들의 노력으로 현대적 패션시스템이 정착되고, 하이웨이스트드 실루엣과 오리엔탈의 영향으로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된 직선적 실루엣인 T-실루엣이 출현으로 여성패션의 현대화가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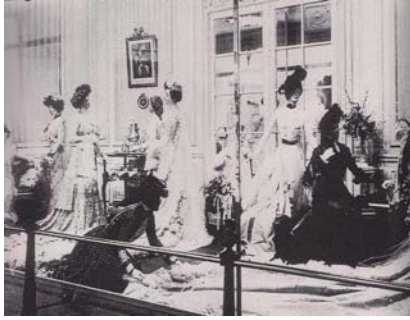
Worth)⁵⁴⁾와 장 필립 워스(Jean-Philippe Worth)에 의해 이 시스템은 파리패션계로 확산되며 정착된다. 1900년 파리 박람회에서 워스 하우스는 ‘화실로 가다(Going to the Drawing Room)’라는 주제로 밀랍인형에 모든 스타일의 의상들을 전시해 현대적 수주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그림 14>.⁵⁵⁾

1816년 이래로 프랑스 뤼 드라 페(Rue de la Paix)에서 번창한 사업을 꾸려나간 ‘두세 란제리(Ducet Lingerie)’의 후손 자크 두세(Jacques Doucet, 1853-1925)는 20세기에 이르러 고급 양말류, 란제리, 레이스, 고급 리넨류, 주문 셔츠를 주로 취급하던 패밀리 비즈니스를 쿠튀르 하우스로 변신시켰다.⁵⁶⁾ 두세는 당시 극장의 여배우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파하고 사라 번하트(Sarah Bernhardt), 세실 소렐(Cécile Sorel), 레장(Réjane)과 같은 배우들에게 오리지널 디자인을 입혀⁵⁷⁾ 현대적 홍보 시스템을 쿠튀르에 적용시켰다. 또한, 글래머러스한 여성을 위해 섬세하고 여성스러우며 레이스로 장식된 그의 도발적 ‘데콜레떼(décolleté)’ 드레스⁵⁸⁾ 디자인은 당시 유행했던 S-실루엣 의상들과는 차별화 된 것으로 티 가운의 형태를 디너 가운으로 승화키며 코르셋의 해방과 패션 실루엣 변화에 기여했다.

현대적이며 세련된 감성 ‘파갱네스크(Paquinesque)’는 언론인들이 잔느 파갱(Jeanne Paquin, 1869-1936)을 지칭하는 말이며, 이것은 고도의 세련미를 표현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었다.⁵⁹⁾ 이 디자이너는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개최된 ‘제1회 쿠튀르 컬렉션(Les Toilelles de la Collectivité de la Couture)’의 대표로 현대적 패션시스템 구축에 기여했으며, 자연미와 기능성의 조화된 디자인 창조를 위해 노력했다. 초기에 편안한 ‘S-실루엣’을 선보인 파갱은 1905년에 이르러 최소한의 보정용 속옷만을 필요로 하는 ‘하이 웨이스티드(high-waisted)’ 실루엣을 장려해 두세와 함께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로서

파갱은 1908년 폴 푸아레의 ‘엘레닉(Hellenic) 디자인 혁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며, 자신은 ‘현대 의상의 어머니(The Mother of Modern Dress)’로 그 입지를 굳힌다.⁶⁰⁾ 파갱은 낮부터 밤까지 착용이 가능한 데이웨어를 디자인하며 현대 여성패션형식 단순화에 기여했다.

자크 두세와 잔느 파갱은 엠파이어 스타일의 티가운을 실외 드레스로 선보이며 폴 푸아레 보다 앞서 여성의 몸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켰으나, 이미 실내복으로 대중에게 익숙해져있던 이 스타일은 혁신으로 규정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동양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푸아레의 디자인은 출현 즉시 주목받으며 여성패션 현대화의 축으로 인정받는다. 1905년 이후 푸아레는 기모노 소매를 적용한 편안한 스타일의 코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였고, 이 코트의 이름을 ‘기모노 코트(kimono coat)’로 명명하며⁶¹⁾ 예술계 전반에 확산되어 있던 오리엔탈리즘을 적극적으로 패션에 반영시켰다<그림 16>. 그는 1906년 코르셋에서 해방된 최초 여성복식인 ‘로라 몬테(Lola Monté)’를 탄생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1907년 ‘디렉투아 스타일’을 완성⁶²⁾하며 주목받았다<그림 15>. 가슴 바로 밑까지 올라간 하이 웨이스트 라인은 ‘디렉투아(Directoire)’ 스타일의 기본형이었다. 단순한 실루엣의 대명사인 디렉투아 라인은 1908년 푸아레가 제안한 새로운 스타일의 직선라인 데이 드레스(day dress)를 거쳐, 스커트의 길이가 바닥에서 2인치 올라왔으나 걸음걸이가 힘들 정도로 타이트한 호블 스커트(hobble skirt)를 탄생시키며 푸아레 스타일 창조의 발판이 되었다. 1909년 발레 뤼스(Ballets Russes)의 첫 파리 공연은 오리엔탈리즘의 참신한 매력을 엘리트들에게 주입시켰고,⁶³⁾ 이후 푸아레는 중동과 동양의 이미지에 열광하며 새로운 드레스를 위해 파스텔 대신 강렬한 비비드(vivide) 색상들을 선택했다. 1905년 기모노 코트를 시작으로 그의 감성을 담은 여유로운 의상들은 대



<그림 14> 장 필립 위스, 『Going to the Drawing Room』, The Exposition Universelle, Paris, 1900
 <출처: 『20th Century Fashion』, 1999, p.12>



<그림 15> 폴 푸아레, 『Three Directoire Gowns』, 폴 이리브(Paul Iribe)의 일러스트레이션, 1908
 <출처: 『Art and Fashion』, 2005, p.120>



<그림 16> 폴 푸아레, 『Kimono coat』, 1905
 <출처: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volume II』, 2006, p.344>

중들 속으로 들어갔고, 이 디자인들은 파리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또한, 이 디자이너는 플람부아양(flamboyant)양식의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고안했고, 패션쇼와 퍼레이드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최신 유행 스타일을 대중에게 알리며 홍보와 브랜드 마케팅의 개념을 정립했다.

I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적 여성패션의 전환점인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추출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었다. 1900년대는 르네상스 이후 실루엣 형성을 위해 착용된 구조물로부터 여성의 몸을 해방시켜 20세기 진취적 여성패션스타일 변화의 촉매가 된 중요한 시대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상류층과 중류층의 일부 의상은 이미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으며,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회적 지위 재확립과 같은 일련의 운동들은 이성주의 복식을 탄생시키며 인위적 구조물에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건강하고 실용적인 패션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의상은 당시 상위계층의 스타일로 수용되지 못하면서 외면당한다. 1900년대 여성패션이 19세기 말과 차별화되며 주목받은

이유는 주류 스타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극단적 실루엣 변화가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 여성복식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프랑스 쿠튀르 폴 푸아레의 업적이 일조한 것은 사실이나, 아르누보를 기저로 'S'에서 'T'로 형태의 극적 단순화를 이루어낸 이 시기 스타일은 한 디자이너의 특정한 의상의 출현만으로 설명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아트 앤 크래프트의 정신을 이어 아르누보의 전형을 보여주며 '꽃으로서의 여성'을 표방한 초기 스타일에서도 곡선미와 장식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스타일이 존재했고, 이 스타일들 역시 점진적인 실루엣 단순화를 통해 여성패션 현대화에 일조했으며, 이외에도 복합적인 사회·문화현상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이 현대화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은 네 가지로 추출되었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3>.

첫 번째는 몸의 자유와 관련된 '실루엣의 극단적 변화'이다 여성패션이 'S'에서 'T'로 실루엣의 극단적 변화를 이루어낸 1900년대는 인공적 지지물에 의해 구속받았던 몸의 주도권이 여성자신에

게로 돌아갔다. 초기에는 장식성이 강한 ‘S-레터’ 실루엣이 유행하나, 중기에 들어서는 여성의 곡선미를 살린 ‘S-커브’ 실루엣과 장식적 요소가 배제되어 단순화된 실루엣의 외곽이 돋보이는 ‘깁슨 걸’ 실루엣이 유행했고, 이후 티가운의 실외착용, 오리엔탈의 수용이라는 복합적 사회변화가 만들어낸 직선 라인인 ‘T-실루엣’이 출현되며 1900년대 여성 패션은 실루엣의 극단적 단순화를 이루어 냈다.

두 번째는 영국과 프랑스의 공조로 인한 ‘대안적 패션의 보편화’이다. 1904년 영국과 프랑스의 ‘양국 협약’에 의한 문호개방은 영국 남성복의 프랑스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유럽과 미국의 여성복 시장을 주도했던 프랑스 패션에 실용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주며, 19세기 중반부터 스포츠웨어로 착용되었던 대안적 패션인 테일러드 수트를 전 세계로 확산시켰고, 이 스타일의 부산물인 에드워드안 블라우스를 독립적 패션 아이템으로 올려놓으며, 착장의 단순화에 기여했다.

세 번째는 새로운 트렌드 확산의 교두보로서 백화점과 패션잡지의 역할이다. 비록 쿠티르의 모조품을 중류계층에 판매했으나 백화점은 패션잡지와 함께 새로운 스타일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통로였으며, 백화점이 고객확보를 위해 제작한 우편 판매전단 역시 스타일 확산의 중요한 도구였다. 쿠티르의 혁신적 스타일이나 대안적 패션이 대중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지 않고 상류층의 전유물로 남았다면, 여성패션의 현대화 시점은 보다 더 늦어졌을 것이다.

마지막은 제1세대 프랑스 쿠티르들의 활약이다. 여성패션의 현대화는 상류계층의 패션을 장악한 쿠티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위스, 두세는 현대적인 패션시스템을 정착시켰고, 푸아레는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파갱은 두세와 같이 ‘하이 웨이스티드’ 실루엣을 일상복으로 장려해 1907년 푸아레의 ‘디렉투아 스타일’ 출현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푸아레는 당시 문화·

예술 전반에서 유행한 오리엔탈리즘을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코르셋으로부터 여성의 몸을 해방시키며 혁신을 이어갔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이 현대 복식사에 의의를 남기는 이유는 이것이 여성의 몸을 해방시킴과 동시에 여성패션의 단순화를 촉진시키는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00년대 여성패션의 현대화 양상을 추출하면서, 언급된 디자이너들의 모든 작품을 분석하지 못한 점, 자료선정과정에서 연구자가 취합한 문헌자료에만 치중해 연구가 진행된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 1) Russet, E. C. (1989). *Sexual Science: The Victorian Construction of Woman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11-12.
- 2) Crane, D. (2000).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Class, Gender, and Identity in Cloth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87.
- 3) Palmer, A. (2005). *Rational Dress*. In Buxbaum, G. (Eds),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p.16-17). Munich: Prestel.
- 4) Baudot, F. (1999). *A Century of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p.30-60.
- 5) Worsley, H. (2000). *Decades of Fashion*, London: Getty Images, pp.9-11.
- 6) Ewing, E., revised by Mackrell, A. (2001).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ew York: Costume & Fashion Press, pp.1-27.
- 7) Mendes, V. & Haye, A. (1999). *20th Century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p.10-47.
- 8) 조규화, 박혜원 (1997). 폴 푸아레의 디자인에 표현된 동양 영향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2), pp.74-86.
- 9) 박상오 (2002). 아르누보 양식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8(2), pp.231-249.
- 최유진, 유영선 (2000). 세기말 유행경향으로 나타난 아르누보 패션, 복식, 50(2), pp.167-182.
- 10) Laver, J. (1995).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p.213-225.
- 11) Hillier, B. (1983). *The Style of the Century 1900-1980*, London: The Herbert Press, pp.20-32.
- 12) Tambini, M. (1996). *The Look of the Century*, New

- York: Henry N. Abrams Inc, pp.12-13.
- 13) 위의 책, p.13.
 - 14) 위의 책, pp.12-13.
아트 앤 쿠라프트의 추종자이자 미국 디자이너인 구스타브 스틱클리(Gustav Stickley)는 1900년 미술공예가 구 전시를 시작했고, 이 시기초 『장인Chafman』이라는 잡지를 출간하여,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디자인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Colins, M. (1988). *Towards Post-Modernism: Decorative Arts and Design Since 1851*, London: Bulfinch Press, p.46.
 - 15) Tambini, M. 앞의 책, pp.14-15.
 - 16) Colins, M. 앞의 책, p.51.
 - 17) 아르누보는 영국에서도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으며, 독일에서는 ‘쥬겐트스틸(Jugendstil)’, 오스트리아의 ‘시세션(Secession)’, 이탈리아에서는 스틸 리버티(Stile Liberty)로 지역별로 다르게 명명되었다.
 - 18) 이재정, 박은경 (2004).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 서울: 예경, p.74.
 - 19) Laver, J. 앞의 책, pp.213-225.
 - 20)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는 시간은 낮과 저녁이 구분되는 오후 5시경이었는데, 이 시간 여성들은 코르셋에서부터 해방되었다. 티 가운데 그 위에 걸치는 의상들은 부드럽고 길게 디자인되어 몸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관습에 따라 여성들은 티 가운을 입고 손님을 맞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간통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앞의 책, p.26.
 - 21) Rexford, N. (2006). *The Perils of Choice: Women’s Foot Wear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In Riello, G. & McNeil, P. (Eds), *Shoes: A history from Sandals to Sneakers* (pp.138-159). London: Berg.
 - 22) 위의 책, pp.152-157.
 - 23) 위의 책, p.157.
 - 24) *Wanamaker’s* (1901). *Wanamaker’s Spring/Summer Catalogue*, National Society of the Coronal Dames in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Boston.
 - 25) red cross shoes. advertisement in the *Ladies’ Home Journal*, April 1908.
 - 26)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16.
 - 27) 앞의 책, p.19.
 - 28) *Fashion Moment* (1999). W, 28(5), p.134.
 - 29) Crane, D. 앞의 책, p.117.
 - 30)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31.
 - 31) 꽃은 20세기 초 여성복식을 언급하면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은유물이다. ‘꽃으로서의 여성(woman as a flower)’은 제르다 부스바움(Geda Buxbaum)이 1999년 그의 저서에서 1900년대 여성복식의 유형을 정의한 것이다. Buxbaum, G. (2005). *Woman as a flower*. In Buxbaum, G. (Eds.),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p.14-15). Munich: Prestel.
 - 32) Ewing, E. 앞의 책, p.VIII.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13.
 - 33)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12.
 - 34) 정홍숙 (1995). *服食文化史(西洋服食史)*, 서울: 교문사, p.283.
 - 35) “The Prince Of Pilsen: The People In The Piece.” *The Play-Pictorial: An Illustrated Monthly Journal* XXII (IV): 144. August 1904. 자료검색일 2009. 10. 23. <http://books.google.com/books?id=YVIZAAAAAAAJ&pg=RA3-PA144>
 - 36)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32.
 - 37) 푸아레는 디렉투아(Directoire) 라인을 1907년 선보이지만, 이것이 유행아이템으로 확산된 것은 1908년이다.
 - 38) Crane, D. 앞의 책, pp.106, 107, 128.
 - 39) 1900년대 초 땅까지 끌렸던 스커트 길이는 테일러드 재킷의 착용으로 이전보다 다소 짧아졌다. 하지만, 스커트는 여전히 땅에서 2cm 이상 짧아질 수 없었고, 발목이 보이는 것이 금지되었다. 브레이드, 주름, 터킹, 스티치, 러플(ruffle) 등으로 트리밍 된 여러 폭으로 이루어진 벨 형(bell) 고어드 스커트(gored skirt)가 S-실루엣을 완성시켰고 그 길이는 땅에 끌리는 것에서부터 좀 더 짧아진 길이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후기의 T-실루엣을 위해서는 폴 푸아레가 디자인한 역삼각형 형태의 드레이프(drape)나 게더(gather)로 장식된 호블 스커트(hobble skirt)가 있었다. 테일러드 수트의 초기 스타일 재킷은 허리선에서 힙선까지 꼭 맞고, 스커트의 길이는 땅까지 끌렸는데 이 스커트 위에는 고어(gore)라는 삼각형 관벌을 끼워 인위적 볼륨을 만들어 허리는 조이고 힙은 둥글려 S-실루엣을 완성시켰다. 하지만, 후기에 들어 재킷은 여유로워지고 그 길이가 이전보다 길어졌으며, 호블 스커트와 착용되어 거대한 모자와 함께 직선적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 40) Ewing, E. 앞의 책, pp.18-21.
 - 41) en.wikipedia(검색어: Entente_Cordiale), 자료검색일 2010. 9. 1 http://en.wikipedia.org/wiki/Entente_cordiale
 - 42) Baudot, F. 앞의 책, p.31.
 - 43)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29.
 - 44) 1900년대는 19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장시스템의 정립과 재봉틀의 개발로 인해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쿠티르라는 고급 의상실의 모조품을 만드는 백화점 상품들과 유니폼제작에 집중되어 있어 1970년대 출현한 디자이너의 기성복, 곧 프레타 포르테와는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이미 1900년대 말 글로벌화를 추진한 1세대 쿠티르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Ewing, E. 앞의 책, p.36.
 - 45) Breward, C. (2003). *Fash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29.
 - 46) Mackrell, A. (2005). *Art and Fashion: The Impact of Art in Fashion and Fashion on Art*, London: Batsford, p.114.
 - 47) Breward, C. 앞의 책, p.114.
 - 48) Baudot, F. 앞의 책, p.33.
 - 49)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20.

- 50) Baudot, F. 앞의 책, p.33.
- 51)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p.20-21.
- 52) 업홀스터리 스타일(upholstery style, style tapissie)은 부유층의 의자, 카노피(canopies), 커튼에 적용되는 장식장치 스타일이 과장된 의상의 장식의 형식에 비유되며 붙여진 19세기말 복식스타일이다.
- 53) Breward, C. 앞의 책, p.34.
위스는 계절마다 변하는 스타일들을 컬렉션을 통해 전시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프랑스 특유의 섬세한 스타일의 전통을 근대산업과 결부시켜 현대적 패션산업시스템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 54) 개스통 워스(Gaston Worth)는 샴브르 신디칼 드 라 오프 꾸뛰르(Chambre Syndicale de la Haute Couture)의 설립자이다.
- 55) Mendes, V. & Haye, A. 앞의 책, p.12.
- 56) Baudot, F. 앞의 책, p.36.
- 57) 위의 책, p.36.
- 58) 위의 책, p.38.
- 59) Reeder, J. G. (2005). Femmes DE LA MODE. In Gerda B. (Eds.), Icon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p.29-31). New-York: Prestel Verlag.
- 60) 위의 책, pp.30-31.
- 61) 위의 책, p.31.
- 62) Fukai, A., et al (2006).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Volume II: 20th Century, Los Angeles: Taschen, p.344.
- 63) Baudot, F. 앞의 책, p.42.

An Observation of Aspects of Modernization of Women's Fashion in the 1900s

Park, Shin Mi · Lee, Jae Jung[†]

Part-time lecturer, Division of Fashion Design Contents,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Division of Fashion Design Contents,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ization of women's fashion in the 1900s, a turning point in modern women's fashion. Documentary research was used and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analyzed. Four different changes in appearance that led to modernization of women's fashion in the 1900s were extrac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ange are as follows: First is a 'radical change of silhouette' related to freedom of the body. The silhouette of women's fashion radically changed from an 'S' line to a 'T' line in the 1900s, when women who had restricted their bodies with artificial support systems such as corsets took charge of their own bodies again. The second change is 'generalization of alternative fashion' which was influenced by cooperation between England and France. Opening of culture due to the 'Entente Cordial' between England and France made the advancement of British men's wear to France possible, and this solved the problem of the age of French fashion that ruled European and American women's wear markets—practicality. Third is the role of department stores and fashion magazines as bridgeheads that spread new trends. Department stores sold copies of the works of couturiers, but they were the channels that spread new styles to the public, together with fashion magazines. The mail-order catalogs department stores published to secure customers were also an important tool that spread fashion. If the innovative styles of couturiers and alternative styles had not spread down to the public but had remained as exclusive property of the upper classes, the point of modernization of women's fashion would have been delayed. The last change is the active work of first generation French couturiers. Modernization of women's fashion is the result of continuous efforts made by couturiers to rule the fashion of the upper classes.

Key words: women's fashion, aspects of modernization, 1900s